

남매탑의 전설

공주 청량사지 오층석탑(보물 제1284호)과 칠층석탑(보물 제1285호)은 남매탑(오누이탑)이라 불리우며 백제의 양식으로 제작된 고려시대의 석탑입니다.

이 두 석탑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오고 있습니다. 통일신라시대에 한 스님이 수도를 하던 중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 입을 벌리는 것이었습니다. 스님이 입 속을 들여다보니 큰 가지 하나가 목구멍에 걸려 있어 이를 뽑아 주자 며칠 뒤에 호랑이는 아리따운 처녀를 업고 왔습니다. 처녀는 혼인날에 호랑이에게 물려오게 되었고, 스님은 처녀를 집으로 돌려보냈으나 처녀의 부모는 스님과 처녀가 부부의 예를 갖추어 주기를 바랐습니다. 이에 스님은 처녀와 남매의 의를 맺고 비구와 비구니로서 수행을 하다가 한날 한시에 열반에 드니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의 행적을 기리고자 석탑 2기를 쌓고 남매탑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굽이치는 순수한 힘, 계룡산국립공원

국립공원 해설프로그램이란?

일상 속에서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자연을 새롭게 바라보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명	일정	장소
계룡산을 찾아 떠나는 여행	연중, 매일(매주 월요일 휴관) 10:00~17:00(1시간소요)	계룡산탐방안내소
남매탑의 전설을 간직한 계룡산	4월~11월, 매일 10:00/14:00(1시간 소요)	계룡산탐방안내소 ~동학사자연관찰로
갑사 오리숲이 들려주는 이야기	4월~11월, 매일 10:00/14:00(1시간 소요)	갑사분소 앞 만남의 장소~갑사
토속신앙의 성지 계룡산	연중, 매일 10:00~17:00(1시간소요)	계룡산탐방안내소
자연의 기쁨! 국립공원과 함께해요!	연중, 매일(토일 제외) (1시간30분 소요)	신청기관(학교 등)
▶계룡산국립공원 생태관광		
계룡산 도사되기	4월~11월 매월 2, 4주 토요일	갑사자연관찰로
미래세대 계룡산 생태탐방	연중 매주 토요일	동학사자연관찰로 등

국립공원해설프로그램을 신청하세요!

참가방법 : 선착순 예약(3일전까지 예약)

▶ 전 화: 042)825-3002

▶ 인터넷: <http://www.ecotour.knps.or.kr>

남매탑의 전설을 간직한 계룡산

국립공원 탐방서비스 현장을 이행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유익한 탐방을 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

충남 공주시 반포면 동학사로 327-6

TEL: 042)825-3002

홈페이지: <http://www.gyeryong.knps.or.kr>

Nature, Our Future!



남매탑의 전설을 간직한 계룡산

계룡산은 예로부터 민족의 명산으로 알려져 통일신라시대에는 오악(五嶽)중 서악(西嶽)으로, 조선시대에는 삼악(三嶽)중 중악(中嶽)으로 봉해져서 국가의 발전과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제(祭)를 지낸 곳입니다.



계룡산국립공원예약하기



계룡산국립공원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하는 지역'으로서, 이 지역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국가가 지정·관리하는 곳입니다.

1967년 지리산을 최초로 지정한 이후 현재 20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국토 육상면적의 3.7%가 국립공원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전문적인 국립공원 관리를 위해 1987년에 설립되었으며, 한라산을 제외한 19개 국립공원(가야산, 경주, 계룡산, 내장산, 다도해해상, 덕유산, 변산반도, 북한산, 설악산, 소백산, 속리산, 오대산, 월악산, 주왕산, 지리산, 치악산, 태안해안, 한려해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비전은 '자연보전과 고객만족을 실현하는 세계일류의 공원관리 전문기관'입니다.

계룡산국립공원은...

계룡산은 백두대간 중 금남정맥의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며 1968년 12월 31일에 3번째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행정구역상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시, 논산시 등 4개 시에 속해 있습니다.

계룡산의 유래는 산의 생김새가 마치 '닭벼슬을 쓴 용'처럼 생겼다는 뜻으로 조선 태조 이성계가 신도안(현 계룡시)에 도움을 정하려고 이 지역을 답사하였을 당시, 동행했던 무학대사가 산의 생김새를 보고 금계포란형(금닭이 알을 품는 모습)이요 비룡승천형(용이 날아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라 일컬었는데, 여기서 두 주체인 계(鷄)과 용(龍)을 따서 계룡산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참나무 이야기

'진짜나무'라는 뜻에서 이름 붙여진 참나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히 자라는 나무로 보통 도토리 열매를 맺는 나무들을 아울러 부르고 있으며 마을 주변이나 높은 산 등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참나무 열매인 도토리는 목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목재는 집을 짓거나 가구를 만드는 재료로 유용하게 쓰였습니다. 특히, 그 재질이 단단해서 뿔감이나 숯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도토리는 숲 속에 사는 곰이나 다람쥐 등과 같은 야생동물의 소중한 먹이인데, 이들 야생동물들이 가까이 있지 않았다면 참나무과의 나무는 씨를 멀리 퍼뜨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단풍나무 이야기

단풍이란 기후가 변화에 따라 잎 색깔이 초록색에서 붉은색, 갈색 또는 노란색으로 바뀌는 현상을 말하며 감나무나 뽕나무도 단풍이 들지만 워낙히해도 단풍의 대표는 단풍나무입니다.

우리나라는 땅이 넓지 않지만 산이 많고 사계절이 뚜렷하며 연간 강우량도 적지 않아 단풍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단풍나무는 잎과 동시에 꽃을 피우고 붉은색의 꽃은 연한 초록색의 어린잎과 대조되어 한층 아름답습니다. 붉은색의 열매는 가을에 노란색으로 익고, 열매에 달린 날개를 돌리며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갑니다.



동학사자연관찰로

동학사자연관찰로는 계룡산국립공원과 주위 산천을 산태극, 수태극의 형세로 표현한 것으로서 계룡산을 중심으로 산과 물이 태극모양처럼 펼쳐져 있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계룡산의 물고기 친구들

맑은물이 좋아요

소나무

숲속의 보약
(피톤치드)

곤충의 겨울나기

진짜나무 참나무

계룡산의 야생화

단풍나무

나무의 나이테

이끼의 강인한 생명력

숲은 생태계의 보물창고

우리가 지켜야 할 국립공원

나무가 아파서 수술을 했어요

생태 해설판

계룡산탐방안내소

계곡물은 환경조각가

동학사자연관찰로 시작

자연해설프로그램
참여 확인

(참여인증 스탬프를 찍어드립니다)

계곡의 자랑 버들치

계룡산국립공원의 맑은 계곡에 살고 있는 대표적인 물고기로 넓은 하천에도 살지만 산간 계곡의 차가운 물을 더 좋아합니다. 수서곤충이나 갑각류 등을 먹고 사는 잡식성이며, 수질오염에 대한 적응력이 약하여 '매우좋은' 등급의 계곡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계룡산의 야생화

봄



여름



가을

